

# '빅3' 이전 확실시 행정복합도시 '순탄'

〈도교육청·전남경찰청·전남농협〉

## ■ 남악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돼가나

### 도교육청 내년 3월 입주 준비 '척척'

### 예산 확보 못한 9곳만 차질 불가피

지난 2005년 10월 전남도청 청사 이전 이후 상당기간 허허벌판이었던 무안 남악신도시가 전남지역 행정복합 중심도시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남악신도시가 도청이 옮겨온 지 3

년이면 다 돼가면서 이전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인근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도 속속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전 기관 중 '빅 3'인 전남도교육청·전남지방경찰청·농협중앙회 전남본부의 이전이 확실시되는 것을 비롯, 24개 신축 이전 주요 공공기관·유관단체 중 이미 13개 기관의 설계 또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여기에 신축 대신 신도시내 건물에

임대 형식으로 옮겨오는 50개 소규모 기관들의 이전작업도 가속화가 불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전 최대 기관으로 3만7천3㎡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신축된다. 오는 12월 건물이 완공되며, 내년 3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일단 12월 준공 이후 2개월간 시험 가동을 한 뒤 신학기 이전 입주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을 위해 각 실과별 이전 담당자들이 매주 모임을 갖고 있다. 청사 이전 예산으로는 32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예산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쓰인다.

◇농협 전남본부=판매장과 행정업무시설을 포함해 총 7천55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세워진다. 현재 건물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10년 내 준공 및 이전이 확실한 상태다.

200여명이 이주하게 되는 농협 전남본부는 당초 이전을 반대하거나 광주에 남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전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업무 효율성 및 업무 연관성 제고 등이 부각되면서 현재는 내부 반대 의견이

조용된 상태다.

◇전남지방경찰청= 오는 2011년 신청사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부지매입비 1차분 5억원과 기초설계비 6억원 등 모두 11억원을 확보한 전남경찰청은 도청 인근에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최근 전남개발공사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또 전남경찰청은 신청사 내 사무실 배치까지 이미 마친 상태며, 이번이 없는 한 오는 2009년 착공해 2011년 입주할 계획이다.

◇9개 기관은 예산 확보 못해=이 같이 건물을 신축·이전하기로 한 24개 주요 기관·단체 가운데 9개 기관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악소방서와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상이군경회, 전남군경미망인회, 전남군경유족회, 재향군인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노총전남지부, 화물자동차운수협회 등은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다.

특히 직원 수 200명으로 최대 규모인 남악소방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2년 착공 계획이 불투명하며, 전남선거위도 2010년 이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희중·최권일기자 chae@



공전국회 "유감"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국회 원구성 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식물국회' 오늘이 분수령

## 김형오의장 "원구성 협상 안될때 본회의 직권상정"

## 민주당 총력 저지 입장...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여야 가축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좌초된 가운데 18일 이 정국 경색의 장기화 여부를 가름 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18일 낮 12시를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부분 원 구성' 강행 입장을 흘리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총력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된 이후 무려 81일 동안 공전하면서 '식

물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간의 합의사항이라며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까지 정상적인 원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간 합의된 사항이며 그간 민주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말해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맞서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고기 특위까지 구성

된 만큼 한나라당은 당연히 가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다면 날치기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은 중재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함께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배제하고 국회법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는 합의 처리가 기본 원칙이며 특정 정당을 제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소득 없는 '쇠고기國調'

## 한나라 다수에 밀려 공방·파행 거듭

축산물 시위에서 나타난 국민 요구를 담고 출발한 국회의 쇠고기 국정조사 가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힘에 밀리면서 아무런 소득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달 14일 시작한 쇠고기 국정조사는 여야간 합의로 출발했지만, 정치 공방으로 얼룩지면서 파행을 거듭하다가 국민적 관심도 이끌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쇠고기 국정조사 자체를 무용지물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쇠고기 국조 특위는 초반부터 MBC PD수첩 관계자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으로 공전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정상개도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1일 농식품부 기관보

고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미국 선물' 발언 파문으로 파행된 것을 시작으로, 한승수 총리의 불출석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이후 기관보고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2주 이상 표류했다. 더욱이 정부는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특위 활동이 20일로 마감되는 만큼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다시 진행하려면 기한을 연장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선(先) 총리 출석, 후(後) 청문회'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투명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5년 연장"

## 민주당 김동철의원 등 국회의원 26명 관련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 등 여야 의원 26명은 최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부여되는 법인세 감면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김 의원은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4년 동안 연간 900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감면해왔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 위성부씨 임명



민주당은 16일 신임 광주시당 사무처장에 위성부(49) 전 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임명했다.

위 처장은 장흥 출신으로, 송일중·사레지오교·서울대(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새천년민주당 정책실장을 거쳐 민주당 기획조정국장,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내무부기자 mjna@kwangju.co.kr



남악신도시내 신축이전 공공기관·유관단체

기관명	부지면적(㎡)	건립면적(㎡)	근무 인원	추진 현황
보건환경연구원	13,270	4,959	72	2010년 이전
여성회관(여성플라자)	13,206	7,703	14	10월말 완공
전라남도 교육청	37,003	15,701	416	12월말 완공 2009년 3월 이전
광주지방법원 목표지정		14,876	81	실시설계중
광주지방검찰청 목표지정	55,782	14,876	86	실시설계중
전남 선관위	2,986	2,314	29	예산 확보중
남악우체국(신설)	7,092	4,500	200	09. 6 실시설계 예정
남악소방서(신설)	6,663	3,306	110	예산확보중
중소기업 지원센터	10,022	8,590	70	2009년 2월 이전
근로자 복지센터	3,391	5,951	10	2009년 2월 이전
무안군 민원센터	4,810		20	08. 10 실시설계 예정
전남지방 경찰청	34,335		400	실시설계중
서해지방 해양 경찰청	23,071	10,579	350	실시설계중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7,559	9,918	143	기본설계중 2010년 이전
상이군경회 전남지부				예산확보중 (3개 기관 함께 이전)
전물군경 미망인회	3,469	1,653	16	
전물군경 유족회				
전문건설 공제조합	1,967		20	실시설계중
한국 스카웃 연맹	1,630	1,521	3	2008년말 준공예정
재향 군인회				2008년말 계획중
새마을운동 협의회	992	595	6	예산확보중
한국노총 전남지부	3,306	1,323	20	예산확보중
화물자동차 운수협회	1,630		6	예산확보중

국내최대 규모 볼보 광주전시장  
**GRAND OPEN**

광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볼보 카를 최대 할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볼보 광주전시장은 볼보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볼보 광주전시장 OPEN 기념  
볼보자동차 및 신규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른가면 "이벤트 데이" 무료 초대  
1000명 한정 초대 (8월 20일)

볼보 아이비모터스 광주전시장 062-372-3600  
(광주광역시 서구 동촌동 100-11)

Volvo for life